

알바니아 (ALBANIA)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중해의 강렬한 여름 태양이 지금 알바니아 땅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해변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고 해외에 나가 있던 알바니아 사람들도 이 기간에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여기 저기서 흘러 넘치는데 이곳에 방문 할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여름 풍경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WEC 발칸컨퍼런스

발칸 3개국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 그리스) 사역자들이 5월 16-21일 기간에 함께 모여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금년 1월 모임에서 함께 결정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장래의 구체적인 사역 방향들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청소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그리스 데살로니가에서는 난민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마케도니아 안에 살고 있는 60만의 알바니아 무슬림들 가운데 교회가 전무한데 이 지역 안에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새로운 비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영어캠프 (Summer English Camp 2019)



6월과 7월에 있었던 두 개의 영어캠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영어캠프를 위해서 미국 현지교회들이 귀한 팀들을 보내어 주어서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6월 영어캠프에 참여 하였던 청소년들과 성인들 가운데 7명의 알바니아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감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 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들과 더 발전된 만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간섭해 주시며 친히 만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가페(Agape)교회소식



아가페교회를 위한 풀타임 사역자가 아직은 한 명도 없지만 "미리(Miri)와 엘로나(Elona)" 부부를 중심으로 모든 모임과 행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된 일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띠온과 아니사 부부, 아우로라, 미게나, 알비, 엘시, 나르디' 등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르셰크(Yrshek) 지역

위르셰크(Yrshek) 지역에서 곧 교회개척이 새롭게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수의 청소년들과 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라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류만육 담임 목사님 방문

지난 7월 1-11일 기간에 저희 파송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직접 알바니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알바니아 사역보고 및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팀원들, 그리고 아가페



교회 리더들과의 교제의 시간은 모두에게 큰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알바니아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늘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성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이 서신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기도제목>

1. 아가페교회 리더인 '미리 & 엘로나' 부부와 그 가정을 위해서
2. 위르셰크(Yrshek)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할 교회 모임 장소를 위해서
3. 필리핀 출신인 '프리실라 선교사'가 8월 말에 입국 할 예정인데 입국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4. 6개월의 단기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독일로 돌아간 '클라라 선교사'와 몇 일 전에 1년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알바니아를 떠난 '류헤리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여성걸 신지연 (수룬, 아론) 선교사가족 드림

<연락처>

- *카톡: yeo191
- *이메일: yeo0191@gmail.com
- *알바니아 현지전화: +355 69 405 9649
- *현지주소: AEP(#55), KP 119, Tirana, Albania
- *WEC International 한국본부: (02) 529-4552
- *대구성은교회: (053) 652-8533